

이웃을 생각하는 땀방울로

사랑을 나눠요~

글 정춘호
사진 성사2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나눔사랑공동체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

주교동 소재 독농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200여 평의 농지에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상추, 깻잎 등을 심어 수확한 작물은 행복두레와 불우이웃 돕기를 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성사2동장 및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지난 3월부터 밭 고르기 작업,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고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 매주 각 분과별로 김매기를 했다. 더위가 시작되던 5월 초순 이틀에 걸쳐 고추와 고구마심기를 맡일에는 풀 뽑기와 고추 줄 띄우기, 거름주기에 전 회원이 참여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전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작물이 잘 자라고 있으며 6월 중순 1차로 감자와 채소들을 수확해 일부는 꾸러미로 만들어 나눠주고 나머지는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확할 농작물 판매 수익금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모든 행사로 인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사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원당 도시재생

음악으로 골목을 점령하다

글 신동수
사진 원당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교동의 골목은 반듯반듯하고 정리가 잘 돼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원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고 1년 뒤 주민협의체가 조직돼 소소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바로 '음악회'였다. 주민들이 직장 퇴근 후 마을에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해서 저녁 시간으로 공연을 기획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건물의 앞 도로를 막고 공연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행히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우회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일단 공간 구성이 마무리됐다. 음향과 조명 마련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무대 차량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주민협의체는 여러 회의를 거쳐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지역 기타동아리 등이 출연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정했다.

마을에서 골목을 막고 하는 음악회. 드디어 공연 준비에 나섰다. 다행히 날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의 주민은 물론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자리를 잡고 친구들을 불러내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걸음을 옮기던 직장인들도 자리를 잡았다. 무대의 막은 원당시장 상인회 난타 님이 우렁차게 열었다. 이어진 공연들에 주민들은 박수와 노래로 화답했다. 소리가 커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닐까 했던 우려는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나선 동네 기타동아리 '육현육색'의 공연에서 주민협의체와 현장센터 활동가들은 함께 '원당 도시재생'이 적힌 조명판을 들고 나왔고 공연은 클라이맥스를 향했다. "정말 좋았어요!", "이 동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내년에도 하나요?", "수고 많았어요!", "감동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다양한 찬사가 쏟아졌다. 도시재생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삶 말이다. 행사를 준비한 주민협의체 임원들도 참여한 주민들도 모두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함께, 멀리 걸어갈 것이다. 마을 안에서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갈 것이다. 가을밤의 골목음악회는 그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됐다.

* 지난해 9월 마을문화 융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고양시가 함께한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꽃할배 · 할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글 류영호
사진 행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신2동 꽃보다 할배·할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외로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집밥을 지어드리고 함께 수다를 떨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할배·할매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없어서 근래에는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있다.

우리 할배·할매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에 가장 취약하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내고 집 안에만 머무시느라 지칠 대로 지친 할배·할매들의 입맛을 돋우어 드릴 반찬을 만드느라 주민자치 복지분과위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 무더위에 마스크 쓰고 일정 간격 유지하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고, 도시락 배달을 위해 계단을 술하게 오르내리느라 땀이 범벅이지만 반가워하실 할배·할매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른다면서 환하게 웃는 봉사자들의 달인들이다.

오이소박이, 불고기 등 5종류도 넘는 반찬을 담아낸 넉넉하고 푸짐한 도시락 속에는 아침저녁 물을 주면서 정성껏 기른 콩나물을 제공해주신 무원10단지 노인회와 퇴약별에서 힘들게 기른 열무를 선뜻 내어주시신 강매동 이웃의 정성도 한가득 담겨 있다.

어르신들께 미리 전화를 걸어 배달시간을 알려드리고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 도시락을 받으시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신다. 또, 전화도 하셔서 정말 더운데 요리에 배달까지 해주었다고 감사함을 표시하신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꽃보다 할배·할매들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벌써 다음 도시락 메뉴를 삼계탕으로 정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주신 동장님, 맞춤형복지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정발산동의 아름다운 반란!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글 이가경
사진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환경정화 활동과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정발산동 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해 청소년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발산동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2020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에 참여해 2단계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자원순환마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1월 쓰담쓰담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거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페스티벌을 위한 준비단계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쓰담데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30일에는 ‘춤추는 빗자루! 쓰담이를 부탁해~’라는 부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축소해 진행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재사용, 자원 재활용 및 분리배출 생활화에 공감했다. 또 종이팩, 폐건전지를 각 티슈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행사에는 집에 모아두었던 폐건전지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건넸다.

행사 중 재밌는 퀴즈로 풀어보는 ‘재활용 분리배출 어디까지 알고 있지?’ 코너는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재활용품인 칩하는 쓰레기, 음식물인 칩하는 쓰레기 등 알쏭달쏭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쉽고 재밌게 퀴즈로 풀어보고 선물도 받아가면서 올바른 배출방법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주민들이 쓰담쓰담 서포터즈 모집과 자원순환마을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앞으로 자원순환마을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발산동주민자치위원회 진윤숙 위원장은 “정발산동 주민 모두가 춤추는 빗자루, 쓰담이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마을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